

닭의 환경위생

0 | 창 구

농촌 진흥청 연구조정 과장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라 양계는 농가부업적인 아주 소규모였으나 오늘날의 양계업은 여러가지 사회의 변천 그리고 민도(民度)와 발을 맞추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서 도시 주변에는 과거에 생각조차도 못하였을 만큼 대 규모 양계장이 군립(群立)하게 되었고 그경영이나 사양방법도 많이 달라졌다.

앞으로는 양계장의 수(數)가 줄어드는 대신 사육규모는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육규모의 증가에 따라 달라져야 할 사양이나 관리방법이 업계의 발전도와 평행하지 못하 까닭에 닭은 여러가지 질병을 일으키고 닭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군사육(大群飼育)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급성 또는 만성으로 일어나는 호흡기 질병은 초생축의 발육 불량을 이르키고 산란율과 수정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양계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이 있지만 종업원들을 잘 모르고 있는 때가 많다.

주위환경이 비교적 좋고 또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동물들은 문제가 안되지만 1년 열두달을 하루같이 계사내에 있어야 할 산란계 특히 케이지사육장에 있어서의 환경조건이란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양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계사에 들어가면 닭의 입장에서 주위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제 환경 위생문제를 몇 가지로 구분해서 참고될 만한 사항을 열거하여 뜻있는 독자들의 숙고를 바라는 바이다.

1. 계사위생(鷄舍衛生)

계사는 건축하기 전에 위치, 방향^{*} 구조등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여야 한다.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도록 계사를 마련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과 다른것이 없다 때때로 계사가 동서향(東西向)으로 되어 여름철에 계사내의 온도가 30°C이상으로 올라가는 예가 허다한것으로 보아 초심양계업자들은 이문제를 매우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 느껴진다.

그러한 계사에서 자라는 닭의 고통이란 말할 수 없이 크며 그와 같은 환경은 곧 발육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질병을 유발시키는 큰 원인이 될수 있다.

그러한 환경에서 닭을 키울 때 여러가지 잡다한 질병을 이르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근래에 와서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질병을 쿠시듐병, 혹두병등과 같은 원충성(原虫性)질병과 최근에 와서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백혈병(白血病)이라하겠다. 계사내의 환경위생이 백혈병 발생에 큰원인이 된다고 하면 우선 이상스럽게 생각될수도 있지만 필자는 그러한 환경속에서 육성된 계군(鷄群)으로 부터 많은 백혈병 발생예를 관찰하고 있다.

백혈병이 병독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병독이 계군에 침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백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닭의 품종이 병(病)에 약하거나 닭자체가 허약해졌을 때 비로서 병독이 침입하여 병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계사내의 환경 위생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어야 하고 또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가지 근래에 와서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캐-지사육과 노력을 아낌으로 인한 계분처리방법이다. 계분배설량은 성계 100수당 1일 10~15kg이며 이만한 양을 1주일 또는 10일간씩이나 방치해 둔다면 “암모니아 가스”的 발생으로 인하여 닭은 호흡기 장애(障礙)를 일으킬뿐만 아니라 때때로 눈의 점막을 자극함으로서 염증(炎症)을 일으키게 하고 그결과는 성장기에 있는 닭은 발육이 나빠지고 산란계는 정도의 차에 따라 그만큼 산란율이 떨어지게 된다. 계분처리 문제는 계사를 관리하는 인력(人力)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닭의 지장이 없는한 되도록이면 1주일이나 10일에 한번씩 처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가고 또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의 절약이 다소라도 닭의 위생면에 해를 끼치게 된다면 당연코 재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사내의 환경위생 중 근래에 와서 중요도가 높아가고 있는것은 여러 종류의 쥐와 흡혈곤충(吸血昆蟲)에 대한 퇴치 방법이다. 쥐는 우리나라 어느 양계장에서나 볼수있고 또는 여려면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양계장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제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에 관해서는 아직 깊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것으로 오물 즉 기생충알이나 병균을 끊임없이 모이통과 물통에 전파시키는 것이며 닭은 밤사이에 쥐가 날라다 놓은 오물을 사료나 물과 함께 섭취하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그중 가장 많은 것은 장내(腸內)세균에 의한 하리증(下痢症)이며 특별한 까닭없이 계군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산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많이 목격할수 있는 현실로서 이로 말미암아 양계업자로서는 더많은 치료제(주로 항생물질)의 투여를 필요로 하게된다.

곤충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며 특히 모기와 류

코싸이 토즌”병을 매개하는 깔깔이의 방제는 대단히 중요한 뜻을 지니게 되었다. 모기로 인한 양계업계의 피해는 상상외로 크며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전염병의 매개는 대부분 모기가 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상 같다.

모기가 행동할수 있는 거리는 적경 약 2km정도라고 하니 그 범위내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면 순식간에 전파될 우려가 있음으로 여름철 모기구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3. 사료위생(飼料衛生)

닭의 각자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첫째로 건강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산력을 최고로 나타내려면 좋은 사료를 적절히 급여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어느때 보다도 중요시 하게 되었다.

근자에 이르러 우리나라 사료공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하였으며 따라서 닭의 생산력도 많은 향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검물(可檢物)의 검색사업을 통해서 본 사료위생문제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즉 품종에 따라 다소간의 차가 있어야 할 영양(榮養)공급이 무분별한 까닭에 때로는 영양부족으로 인한 생리장애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와는 반대로 영양분의 과도(過度)한 공급으로 지방계(脂肪鶲)가 많이 생기고 있는 현상은 도처에서 흔히 볼수있다.

한가지 눈에 띌정도로 향상된 점은 영양분의 배합이 비교적 잘돼가고 있는 증거로서 영양소의 결핍 특히 비타민 결핍증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수년전만 하더라도 겨울에나 초봄에는 비타민 결핍증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 증세를 갖고 국내양계업자들은 “지프테리”라고 불러 왔으며 불필요한 많은 항생제(抗生素)를 투여하여 치료를 해왔다. “지프테리”란 말을 없애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와 같이 계사시설이 빈약한 곳에서는 겨울철 사료 위생으로서 비타민제의 충분한 공급이 절실히 요구된다.

여름철의 사료위생은 특별한 관심사가 되고

□ 연재 · 닭의 환경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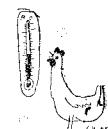
있다.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배합사료가 적정기 일내에 소모되지 않을 때 내용물은 뜨거나 썩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성장기종에 있는 육성추는 폐염(肺炎)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사료 생산공장이나 중간판매업자들과 각 양계업자들 사이에는 이 문제를 갖고 좀더 실질적인 향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사료급여상의 중요한 문제는 급여 순서인 것이다. 사료의 운반기구는 매번 쓰면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 다시 사용도록 하고 특히 급여순서는 나이 어린 병아리부터 시작해서 중추로, 중추다음 성계의 순으로 급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단히 쉬운 일이면서도 실행이 잘 안되는 것이 바로 이 급여 순서인 것이다. 이것이 백혈병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꼭 지켜야 할 사항의 하나인 것이다. 비단 백혈병 뿐만이 아니고 성계가 갖고 있는 다른 병은 저항성이 약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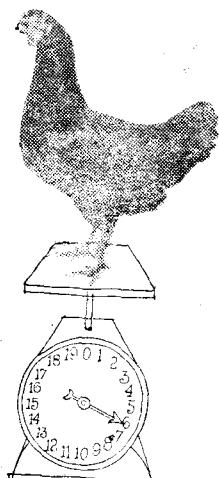
병아리에게 전파시키지 말도록 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양계업은 부업적인 형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경영형태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면서도 자금난(資金難) 시간관계 또는 적극성이 부족한 나머지 의식하면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힘드는 양계를 하여야만 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양계도 기업적(企業的)이고 집약적(集約的)으로 발전돼 나갈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사료의 효과적인 수급(需給)과 이용(利用), 생산물의 시장제도(市場制度) 립화상으로 보아 부업양계는 점차적으로 소멸돼 갈 것만은 틀림없는 전망이고 보면 우선 질병 개개의 문제점을 다루기에 앞서 일반적인 환경위생 면을 철저히 다루므로서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 품종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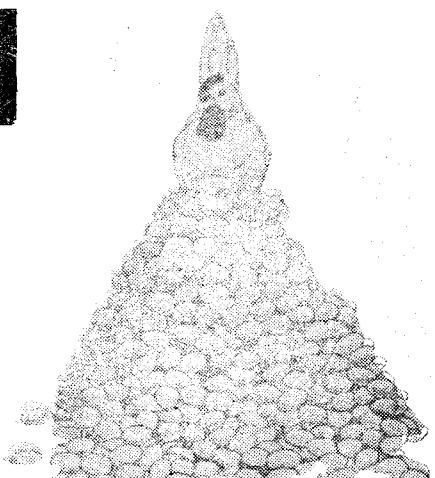


세계의 경제지



B 300

B 390



美國巴比祿原種農場韓國特約孵化場
●全群自家種鷄責任生產

鳳鳴孵化場
忠南天安市鳳鳴洞60-1 TEL. 792